

〈劔客薛生傳〉 研究

- 〈劔客記聞〉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

안순태*

1. 서론
2. <劔客記聞> 개작의 정황
 - 1) <劔客記聞>과 <劔客薛生傳>
 - 2) 개작의 정황
 - 3) 민간 설화의 수용과 활용
 - 4) 論贊을 통한 작품의 통일성 강화
3. 改作의 양상과 그 특징
 - 1) 挿話의 改削을 통한 서사의 유기성 제고
 - 2) 구체적 묘사와 극적 서술
 - 3) 민간 설화의 수용과 활용
 - 4) 論贊을 통한 작품의 통일성 강화
4. 조선후기 검협전의 전통과 <劔客薛生傳>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南周獻(1769~1821)의 <劔客薛生傳>이 兪漢雋(1732~1811)의 <劔客記聞>을 개작한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 조선후기 劔俠傳 형성의 맥락에서 이 작품이 지니는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兪漢雋의 <劔客記聞>은 주인공이 어려서 도적에게 부친을 잃고 검술을 연마하여 부친의 원수를 대신 갚아 준 지방관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이다. 南周獻은 兪漢雋보다 한 세대 뒤의 인물로 유한준과 교유한 사실도 확인되어 유한준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의 문집과 거기 수록된 <검객기문>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유한준의 <劍客記聞>을 개작하여 <劍客薛生傳>을 지었는데, 이 작품은 유한준의 작품 가운데 주인공이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삽화를 빼고 나머지 삽화들로 재구성한 후 논찬을 덧붙인 것이다. 삽화의 改削을 통해 전체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작품의 완결성이 높고 있으며 세부 서술에서 소설적 형상화를 추가하여 작품의 흥미성을 높이고 있다. 또 논찬을 추가하여 작품의 통일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劍俠이 출현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이다. 18~19세기에 들어서 劍俠에 관한 傳 등 검협 관련 한문단편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는 전란 이후 검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협과 관련한 이야기가 민간에 전하게 되고, 작자들이 그 이야기를 채택해 傳 등으로 창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劍術의 전통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 倭 劍術의 능란함에 충격을 받고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劍士의 수가 늘고 민간에 검객과 관련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하게 되었는데 문사들은 민간의 검객·검협 관련 이야기를 취해 검협전을 짓게 된다. <劍僧傳>·<劍女>·<保寧少年事>·<劍客記聞>·<五臺劍俠傳>, 그리고 유한준의 <劍客記聞>과 남주헌의 <劍客薛生傳>은 모두 이러한 배경에서 출현한 것이다. 유한준의 <劍客記聞>이 傳聞한 내용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선에서 기록한 것이라면 남주헌의 <劍客薛生傳>은 작품의 완결성을 고려하고 소설적 형상화를 더하여 완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선후기 검협전은 임진왜란의 경험, 劍士의 수 증가, 그와 관련한 민간의 검협 관련 설화가 그 주요한 형성 배경이 되고 있으며, 남주헌의 <검객설생전>은 조선후기 검협전이 형성되게 된 여러 배경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주면서도 작품의 완결성 측면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핵심어 : 劍客薛生傳, 劍客記聞, 劍客, 劍俠, 南周獻, 兪漢雋, 壬辰倭亂

1. 서론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漢陽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 도시 공간의 팽창이 가속화된다. 특히 그 이전 官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도성 내외의 인구는 17세기 후반 이래로 다양한 구성을 보이게 된다.¹⁾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상업의 발달로 도시가 활기를 띠게 되면서 한양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간상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된다.²⁾ 야담이나 잡기류 등을 통해 우리 문학사에서 조선후기의 이러한 다양한 인간상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서사양식인 傳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발달한 시정 분위기를 반영하여 이전 시기에 볼 수 없었던, 주로 예술가나 중인을 대상으로 한 傳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예술가나 중인 이외에도 하나의 부류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자주 등장하는 인간상이 바로 游俠이다. 17세기 이래,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활기를 띠게 되는 한편 전통적 향촌사회가 해체되면서 유입된 유민들이 한양에 정착하면서 다단한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그에 따라 공적 질서가 해이·문란해지면서 도덕과 법률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적 질서와 윤리 확립에 대한 시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출현한 것이 유협이다.³⁾ 林俊元이나 金洛瑞·金萬最,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廣文者傳>의 廣文(達文)이 조선후기 유협으로 이름이 높았고, 그들에 대한 전기도 전해지고 있는 형편이다.⁴⁾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작품들 가운데 유협전과 유사한 듯하면서도 유협전이라 단정하기 망설여지

1)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136~146면.

2) 조선후기에 출현한 새로운 다양한 인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자료로 趙秀三의 『秋齋紀異』를 들 수 있다. 이 책에는 구걸하여 주인을 먹여 살린 중, 여승과 사랑에 빠진 양반, 음담패설에 능한 인물 등 유형화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 인간상이 등장한다. 다양한 인간상이 새롭게 출현했다는 말은 중, 양반 등 신분에 의해 가려져 있던 인간의 ‘개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다.

3) 박희병, 『조선후기 민간의 유협상상과 유협전의 성립』,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2006~2009년.

4) 유협전으로는 朴趾源의 <廣文者傳>, 李钰의 <張福先傳>, 鄭來僑의 <任俊元傳>, 蔡濟恭의 <李忠伯傳>, 趙熙龍의 <張五福傳>, 申昉의 <金萬最傳> 등 다수가 전하며 이 작품들에 대한 분석은 박희병, 위의 논문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는 작품들이 존재한다. 바로 검협전 혹은 검객전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조선후기 검협전, 혹은 검객전이라 할 수 있는 작품들로는 申光洙(1712~1775)의 <劍僧傳>, 安錫徽(1718~1774)의 <劍女>, 洪大容(1731~1783)의 <保寧少年事>, 俞漢雋(1732~1811)의 <劍客記聞>, 李安中(1752~1791)의 <李將軍傳>, 金祖淳(1765~1832)의 <五臺劍俠傳>, 南周獻(1769~1821)의 <劍客薛生傳> 등을 들 수 있다.⁵⁾ 공교롭게도 이들 검협전·검객전의 작자는 대부분 18세기 내지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인물들이다. 우리는 이전 시기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검협·검객에 관한 전이 유독 조선후기에 적지 않은 수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는 南周獻⁶⁾의 <劍客薛生傳>을 俞漢雋의 <劍客記聞>과 대비하여 분석하고 <검객설생전>의 창작 배경에 대해 살핀 후 검협전·검객전의 전통에서 이 작품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2. <劍客記聞> 개작의 정황

1) <劍客記聞>과 <劍客薛生傳>

5) 이들 작품 가운데 <劍客薛生傳>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박희병·정길수 편역, 『기인과 협객』, 돌베개, 2010에서 번역, 소개된 바 있다. <劍女>·<保寧少年事>·<劍客記聞>은 비록 ‘傳’을 표제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傳의 장르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작품들이다. <劍客記聞>은 ‘劍客某小傳’이라는 제목으로도 전하거나와 <劍女>와 <保寧少年事>는 傳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작자의 論贊까지 갖추고 있어 이들 작품을 검협전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할 수 있다. 傳의 장르적 개념에 대해서는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의 性向 研究』,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39면 참조.

6) 南周獻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南有容의 4世孫이자 南公轍의 從孫이며 南秉哲과 南秉吉의 조부이기도 하다. 南龍翼 이래로 이 宜寧南門은 조선후기 전 시기에 걸쳐 文名을 떨쳤던 집안이다. 남주헌은 바로 이 집안에서 남공철 세대와 남병철·남병길 세대를 잇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그동안 남주헌에 대해서는 그의 생애와 詩論을 소개한 연구, 조선후기 의령남문의 가학에 대해 고찰하면서 남주헌의 가학 계승 양상을 살핀 연구 등이 있다. 남주헌의 생애와 가학에 대해서는 안순태, 『宜齋 南周獻의 中國 詩史와 杜詩에 대한 인식』, 『한국한시연구』16, 한국한시학회, 2008; 안순태, 『南公轍 文學의 淵源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참조.

남주헌의 <劔客薛生傳>은 전혀 새로운 작품은 아니다. 吳道一의 <薛生傳>과는 무관한 작품이지만, <劔客薛生傳>의 주인공 薛生은 바로 俞漢雋이 쓴 <劔客記聞>의 주인공과 동일 인물이다. 이 두 작품은 주인공이 같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채용한 삽화 또한 흡사하다. 두 작품은 공히, 주인공이 어려서 도적에 의해 부친이 살해당했을 때 부친의 원수를 대신 갚아 준 지방관에게 검술로써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를 큰 줄거리로 삼고 있다. 야담에서 흔히 목격될 법한 평범한 보은담에 불과해 보이지만, <劔客薛生傳>의 구체적인 서술을 살펴보면 민간 설화의 화소를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傳의 장르적 특성을 준수하고 있고, 상상력을 동원한 구체적이고 극적인 서술을 하여 흥미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규범적 가치를 옹호하고 있기도 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먼저 남주헌의 <검객설생전>의 서술 분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薛生은 영남 草溪 출신으로 검술로 이름이 나 검객으로 불렸다.
- [2] 薛生의 부친은 충청도와 경상도의 장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 설생이 부친과 함께 길을 나섰다가 부친이 두 명의 도적에게 피살되고 소를 도둑맞았다.
- [3] 요행히 해를 입지 않은 설생은 도적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부친의 시신을 수습하고 저삿거리로 가 도적을 찾았다.
- [4] 두 명의 도적 가운데 하나가 보이지 않자 관아에 신고했고, 郡官이 나머지 도적을 찾아내어 모두 사형에 처했다. 이때 설생의 나이 9세였다.
- [5] 이후 설생은 밤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남몰래 검술을 익혀 3년 만에 검술에 달통했다.
- [6] 설생이 한 재상에게 몸을 의탁해 지내고 있었는데 웬 중이 나타나 짐무를 보던 재상을 칼로 찌르려 하자 설생이 그를 물리쳤다.
- [7] 며칠 후 또 다른 중이 나타나 재상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지난번 죽은 중이 자신의 사미승이라며 설생에게 결투를 청한다. 설생은 이를 받아들여 하늘로 올라가 싸웠는데 설생이 중을 죽이고 승리했다.
- [8] 설생은 재상에게, 자신이 어릴 적에 부친이 도적에게 피살되었을 때 군

관의 도움으로 부친의 원수를 갚은 일이 있었는데 재상이 바로 그때의 郡官이라 하고, 은혜를 갚았으니 떠나겠다고 하고는 증적을 감춘다.

[9] 論贊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삽화로 이루어져 있다. ① 설생의 부친이 도적에게 살해당하자 郡守의 도움으로 부친의 원수를 갚고 검술을 익혀 검술에 달통했다는 이야기([2]~[5]), ② 설생이 어떤 재상에게 의탁해 지내고 있던 중 惡僧이 나타나 재상을 죽이려 하자 그를 물리치고 다시 악승의 스승이 찾아오자 그와 결투하여 물리쳐 설생의 부친 원수를 갚아 준 재상에게 보은하고 떠났다는 이야기([6]~[8])가 그것이다. 人定에 집착하고 있는 점, 論贊을 덧붙여 설생의 행적을 기린 점은 傳의 장르적 성격에 충실한 면모다.

남주헌의 이 작품은 兪漢雋이 동일 인물을 대상으로 지은 <劔客記聞>을 개작한 것이다. 유한준의 작품에 비해 남주헌의 것이 뒤에 지어진 것인데 이 둘을 대비해 보면 <劔客薛生傳>의 특징적 면모가 훨씬 뚜렷하게 부각된다. 유한준의 <劔客記聞>의 서술 분절은 다음과 같다.

- [1] 검객 아무개는 湖嶺 사이의 사람으로 검술로 이름이 나 검객으로 불렸다.
- [2] 부친이 충청도와 경상도를 드나들며 장사하다가 피살당했는데 縣令이 범인을 잡아 죽였다.
- [3] 이후 검객은 밤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남몰래 검술을 익혀 3년 만에 검술에 달통했다.
- [4]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검사 아홉을 가려 뽑아 전쟁에 내보냈는데 검객도 거기에 뽑혔다.
- [5] 함께 출전한 검사 중 나머지 여덟이 왜 검사의 칼에 죽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검객은 요행히 왜 검사의 빈틈을 노려 왜 검사를 물리쳤다.
- [6] 이후 해마다 그날이 되면 술잔 아홉 개를 두고 함께 출전했던 검사 여덟과 왜 검사를 제사 지냈다.
- [7] 검객이 한 재상에게 몸을 의탁해 지내고 있었는데 웬 중이 나타나 짐무를 보던 재상을 칼로 찌르려 하자 검객이 중을 물리쳤다.

- [8] 열흘 뒤 또 다른 악승이 나타나 재상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지난번 죽은 중이 자신의 제자라며 검객에게 결투를 청하였다. 검객이 결투를 받아들여 둘은 하늘로 올라가 싸웠는데 검객이 중을 죽이고 승리했다.
- [9] 검객은 재상에게, 자신이 어릴 적 현령의 도움으로 도적에게 살해당한 부친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그때의 현령이 바로 재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은혜를 갚았으니 떠나겠다고 하고는 종적을 감춘다.

이 작품은 『著菴集』 권11에 ‘劔客某小傳’이라는 제목으로, 『自著』 권27에는 ‘劔客記聞’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전한다.⁷⁾ 두 이본 사이에는 약간의 글자의 출입이 있기는 하지만 문장의 의미나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다. ‘劔客某小傳’과 ‘劔客記聞’, 그리고 ‘검객기문’의 원제인 ‘劔客某事’ 가운데 어떤 것이 작품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목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작품이 이렇게 다양한 제목으로 전하는 것이 작품 자체에 傳的 요소와 記聞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검객 아무개를 대상으로 입전한 간단한 전이라는 뜻에서 ‘劔客某小傳’, 傳聞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劔客記聞’ 혹은 ‘劔客某事’라고 칭하기도 한 것인데 위 서술분절에서 보듯이 유한준의 이 글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傳이라 보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 가령 주인공의 人定을 거의 밝히지 못한 점, 논찬이 생략되어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도 세 개의 삽화가 모두 주인공의 검술이라는 구심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장르적 특성도 일정하게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유한준의 이 작품은 세 개의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① 검객의 부친이 피살당하여 현령의 도움으로 부친의 원수를 갚고 검술에 매진하여 검술에 달

7) 『自著』에 수록되어 있는 글의 본래 제목은 ‘劔客某事’인데 교정자가 ‘劔客記聞’으로 고친 것이다.

8) 박희병 교수는 傳을 크게 ‘의문적 유형’, ‘삽화적 유형’, ‘유기적 유형’의 세 유형으로 나눈 바 있다. 그 틀로 보면 유한준의 이 작품은 유기적 유형의 성격도 띠고 있으나 대체로는 分立된 삽화들이 하나의 구심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삽화적 유형에 가깝다고 하겠다. 삽화적 유형의 전과 유기적 유형의 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의 性向 研究』,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45~46면 참조.

통했다는 이야기([2]~[3]), ② 임진왜란 때 함께 출전한 다른 검객들이 모두 왜 검사에 의해 죽고 검객이 요행히 왜 검사를 물리쳐 승리하고는 그들을 제사 지냈다는 이야기([4]~[6]), ③ 검객이 어떤 재상에게 의탁해 지내고 있던 중 惡僧이 나타나 재상을 죽이려 하자 그를 물리치고 다시 악승의 스승이 찾아오자 그와 결투하여 물리쳐 검객의 부친 원수를 갚아 준 재상에게 보은하고 떠났다는 이야기([7]~[9])가 그것이다. 두 작품을 견주어 보면 유한준의 이 글과 남주헌의 <劔客薛生傳>이 흡사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동일한 주인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동소이한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劔客記聞>과 <劔客薛生傳> 중 어느 것이 원작이고 어느 것이 개작일까?

2) 개작의 정황

동일한 인물을 대상으로 유사한 삽화를 들고 있다는 점만으로 두 작품이 原作-改作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가 다른 유사한 화소를 바탕으로 각자 창작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한준의 <劔客記聞>과 남주헌의 <劔客薛生傳>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原作과 改作 관계의 작품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단적인 증거는 개개 삽화의 전개 방식이 동일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글자 운용에서 原作과 改作의 관련성이 포착된다는 점이다.

삽화의 유사성은 앞서 살핀 두 작품의 서술분절을 보면 쉽게 파악된다. 즉 검객이 어렸을 때 그 부친이 도적에 의해 살해당하고 지방관의 도움으로 부친을 죽인 도적을 찾아내어 원수를 갚은 후 검술을 익힌다는 삽화, 부친의 원수를 갚아 준 지방관을 악승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은혜를 갚는다는 삽화 등이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채택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라 문장 표현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되는데 두 작품에서 공히 첫 번째 삽화로 채택된 이야기, 즉 설생이 부친을 잃고 천행으로 지방관의 도움을 받아 부친의 원수를 갚은 후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검술을 익혀 검객이 되는 과정에 대해 두 작품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俞：客雖天幸得報父仇，然既家敗，行遊四方。爲人好擊劔，乃遂從善劔人學劔，學劔三年而劔術通。夜月明，獨携劔，入深山窮谷無人處，習劔而歸以爲常，人莫之知也。

南：父讐既復，行游四方。好擊劔，三年劔術通。每月明，獨携劔，習深山無人處以爲常，人莫之知也。(밑줄-필자)

<劔客薛生傳>의 서술이 조금 더 간략하기는 하지만 두 서술은 단순히 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각자 따로 기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흡사하다. 위에 인용한 서술은 하나의 예일 뿐 두 작품 사이에는 위의 예처럼 흡사한 구절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⁹⁾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원작이고 다른 하나가 개작이라면 유한준의 <劔客記聞>이 원작, 남주헌의 <劔客薛生傳>이 개작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유한준(1732~1811)과 남주헌(1769~1821)의 생몰년을 보면 유한준이 남주헌보다 37세 많다. 『著菴集』과 『自著』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 <劔客某小傳>과 <劔客記聞>(〈劔客某事〉)의 제목 아래에는 공히 ‘丙子’라는 年紀가 있는데 丙子年은 곧 1756년이다. 남주헌의 <劔客薛生傳>은 정확한 창작 연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生年을 보면 <검객설생전>이 유한준의 <검객기문>보다 이후에 지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남주헌이 어떤 경위로 유한준의 <劔客記聞>을 개작하여 <劔客薛生傳>을 지은 것일까. 남주헌과 유한준의 관계를 더듬기 위해서는 먼저 유한준과 남유용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유한준은 남유용의 문인이었다.¹⁰⁾ 남유용은 바로 남주헌의 증조부다. 남유용 이래 의령남문은 유한준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남주헌의 증조부

9) 몇 가지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① 俞：後託身宰相，常見幸。一日宰相坐府中視事，忽一老僧直入上階，將刺殺宰相，左右大亂。客立視乃大呼，出懷中劔擊殺之。南：後托身於宰相，甚見幸。宰相方坐府治事，忽有一僧歷階，欲刃宰相，僧有仇於宰相者，左右大亂，客拔懷中劔殺之。② 俞：呼劔客曰：“死僧吾弟子，可與吾劔戰否？”曰：“可。”乃劔戰…(中略)…居有間，血三四點墮于地，徐下大嘯曰：“僧斃矣。”南：呼客曰：“使宰相不死於吾手而謀也。死僧吾沙彌，可與吾戰劔否？”曰：“可。”相與翻身而騰空…(中略)…少頃，血墮地數點，客杖劔大嘯而下曰：“僧斃矣。”

10) 유한준이 남유용으로부터 문장을 배운 사실은 南公轍, 『著菴集序』, 『穎翁續藁』卷4; 俞漢雋, 『祭太學士雷淵南公有容文』, 『自著』卷22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자 남유용의 아들 南公轍은, 유한준의 훈도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유한준의 아들 俞晩柱와 어울리기도 했다.¹¹⁾ 그러니 두 집안의 관계는 남유용과 유한준 이래로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주현이 <검객설생전>을 짓기 전에 유한준의 <劔客記聞>을 접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또 있다. 남주현의 종조부 남공철은 남주현을 애지중지하면서 가학의 계승자로 여기며 그에게 큰 기대를 건 바 있는데,¹²⁾ 남공철이 유한준의 문집 서문을 써 주는 과정에서 남주현이 유한준의 문집을 직접 열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남주현이 유한준에게 쓴 편지¹³⁾이다. 이 편지는 유한준이 남주현의 모친 坡平尹氏의 묘도문자를 지어 준 데 대해 사례하는 간략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둘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와 같이 유한준보다 한 세대 뒤의 인물인 남주현이 동일한 인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삽화를 통해 작품을 구성한 점, 삽화의 전개 방식이 동일하고 문장 표현이 흡사한 점, 남주현이 유한준과 직접 교류하는 등 그가 유한준의 문집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통해 남주현의 <검객설생전>은 유한준의 <검객기문>의 개작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3. 改作의 양상과 그 특징

이상으로 남주현이 유한준의 <劔客記聞>을 개작하여 자신의 <劔客薛生傳>을 완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 표현조차 유사한 곳이 적잖이 눈에 띄지만, 그러나 남주현의 <劔客薛生傳>은 여러 모로 유한준의 <劔客記聞>과 변별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이제 남주현의 작품이 유한준의 것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즉 남주현이 어떠한 방향으로 <劔客記

11) 남공철이 유만주와 어울렸던 정황은 南公轍, 『與吳士執』, 『金陵集』 卷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南公轍, 『宜齋藥序』, 『金陵集』 卷11 참조.

13) 南周獻, 『上俞參議書』, 『宜齋集』 卷8.

聞>을 개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挿話의 改削을 통한 서사의 유기성 제고

남주헌의 <劔客薛生傳>에는 유한준의 작품 가운데 검객이 임진왜란에 출전했던 이야기(앞의 <검객기문> 서사분절의 [4]~[6])가 빠져 있다. 이 부분은 검객과 倭 劔士와의 결투 장면이 박진감 있게 묘사되어 있어 무척 흥미롭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검술에 능한 아홉 劔士를 뽑아 전투에 내 보내자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그에 맞서 倭 劔士를 출전시키면서 벌어졌다 는 이야기인데, 남주헌의 작품에는 빠져 있는 이 부분을 유한준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倭 劔士는 草笠을 쓰는 검법을 썼는데 草笠法은 대개 검술 가운데 특이한 검법이였다. 맞붙어 싸우니 草笠이 움직일 때마다 차례로 여덟 劔士의 머리가 잘려나갔다. 객의 차례가 되자 객이 생각했다. ‘왜 의 劔士는 천하의 異人이라 당해낼 재주가 없구나. 하지만 이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는 몸을 솟구쳐 곧바로 위로 올라가 공중에서 내리쳤다. 倭 劔士가 응수하려던 찰나 갑자기 갓끈이 끊어져 왜 검사의 눈이 보이지 않아 손으로 칼을 뽑을 수 없게 되었고 검이 벌써 (왜 검사의) 머리 위로 떨어져 죽게 되었다.

검객이 말하였다.

“내 마침 그 약점을 틈탔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저자가 내 검에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매번 그 전투한 날 밤이 되면 제사를 베풀어 여러 劔士를 제사 지냈는데 술잔 아홉 개를 두었으니 좌우로 여덟 잔, 가운데에 한 잔을 두었다. 어떤 이가 그 까닭을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덟 劔士는 내 벗들이고 倭 劔士는 내 스승이래요.”(괄호-필자)¹⁴⁾

14) 俞漢雋, 『劔客記聞』, 『自著』 卷27: “倭劔士其術用草笠, 草笠之法, 蓋劔術而別法也. 與之戰, 輒草笠動而以次斷八劔士頭. 次及客, 客念倭劔士天下異人, 不可當, 然業已當戰, 乃奮身直上,

삽화는 이렇게 끝이 난다. 위 삽화에서 특히 왜 검사의 草笠法에 대한 묘사는 왜 검사의 신이한 검술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초립을 움직일 때마다 조선 劍士들의 머리가 잘려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왜 검사의 몸놀림이 빠름을 극적이고 신비롭게 표현한 것이다. 또 요행히 왜 검사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천행일 뿐이며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검객 자신이 죽인 왜 검사를 스승으로 대하며 해마다 그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면모도 독특하다.¹⁵⁾

그런데 남주헌은 <劍客記聞>을 개작하여 <劍客薛生傳>을 지으면서 어째서 이런 흥미로운 삽화를 삭제했을까? 유한준의 <劍客記聞>은 세 개의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삽화 ①에서는 검객이 부친을 잃고 날마다 검술을 익혔고 삽화 ②에서는 검객이 왜 검사를 맞아 싸워 물리쳤으며, 삽화 ③에서는 검객이 검술로써 악승을 물리쳐 부친의 원수를 갚아 준 재상(前 縣令)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세 삽화는 각각의 이야기로도 존재하면서도 구심점이 될 만한 요소, 즉 세 삽화에서 검객의 뛰어난 검술이 공통적으로 부각되어 있다. 그 점에서 <劍客記聞>은 비록 또 다른 제목인 ‘검객모사’나 ‘검객기문’이 암시하듯 傳의 장르적 특성을 온전히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검객의 ‘뛰어난 劍術’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傳의 장르적 성격을 얼마간 보여주고 있다.

從空而下. 倭劍士方接忽纒絕, 倭劍士目不及視, 手不及發, 劍已下頭上矣, 乃死. 客曰: ‘我適乘其弊, 不然彼不死我劍矣.’ 每戰日夜設祭, 祭諸劍士. 設酒九盅, 左右八盅, 中央一盅. 或問其故, 曰: ‘八劍士我友也, 倭劍士我師也.’”

- 15)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병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이 상당하였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柳夢寅(1559~1623)의 『於野談』에는 일본에 10년 넘게 잡혀 있다 돌아온 이가 왜인의 풍습에 젖어 자나 깨나 칼을 소지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뜻을 거스르면 칼을 뽑아 찌르는 습성이 있어 친척까지 죽일 뻔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그러한 왜인이 풍습이 몹시 사납고 두려운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삽화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미약하고 적개심 또한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그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적과의 긴장감 넘치는 결투 장면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주인공은 자신이 죽인 왜 검사를 스승으로 모시며 제사까지 지낸다. 이는 戰後에 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왜에 대한 적개심이 약화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왜와 왜인을 대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申光洙의 <劍僧傳>이 주목되는데 <劍僧傳>의 주인공 또한 왜인인데도 異人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작품 내에서 그에 대한 적개심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 劍僧이 조선의 劍客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는 점 또한 <검승전>이 <검객기문>과 흡사하다.

남주현이 유한준의 글을 개작할 때 삽화 ②를 삭제한 이유는 그것이 작품의 유기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유한준의 글에 보이는 세 개의 삽화는, 실은 두 개의 삽화로 파악할 수도 있다. ①과 ③은 사실상 서로 연결되는 삽화이므로 하나의 삽화로 보아도 무방하다. 남주현은 개작 과정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검객기문>의 삽화 ①과 삽화 ③을 잇고, 그 사이의 다소 이질적인 삽화 ②를 삭제한 것이다. ①과 ③은 얼핏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삽화를 병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친의 원수를 갚아 준 이가 결국 검객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宰相과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이 작품 말미에 밝혀지면서 작품 전체의 구조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2) 구체적 묘사와 극적 서술

비록 ‘劔客某小傳’이라는 제목으로도 전하지만 ‘劔客記聞’이나 이 작품의 또 다른 제목 ‘劔客某事’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한준의 작품은 傳聞한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였을 뿐 작자가 임의로 내용을 첨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劔客記聞> 가운데 임진왜란에 출전한 검객의 이야기를 다룬 두 번째 삽화에서 보이는 흥미성은, 따라서 유한준의 수식을 거쳐 획득된 것이라기보다 애초의 이야기 자체가 갖추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유한준의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삽화라 할 수 있는 임진왜란 관련 삽화를 제거하였다면 남주현의 작품의 흥미도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남주현은 단순히 삽화만을 산삭하는 개작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훨씬 더 구체적이며 때로는 상상력까지 동원한 서술을 <劔客薛生傳>에서 보여주고 있다. <劔客薛生傳>의 이러한 특징은 人定을 기술하고 있는 첫 부분에서부터 확인된다. 유한준은 자신이 전해 들은 그대로, 검객이 湖嶺 어딘가에서 태어났으며 성명도 가계도 전혀 알 수 없다고 한 데 반해,¹⁶⁾ 남주현은 검객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가 嶺南 草溪 출신이며 성이 ‘薛’

16) 俞漢雋, 『劔客記聞』, 『自著』卷27: “劔客某者, 湖、嶺間人, 其先未詳其誰氏也. 人間姓名, 亦不言姓名. 後以劔術聞, 故因號曰劔客云.”

이고 서른이 되도록 장가들지 않았다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¹⁷⁾

남주헌의 구체적인 서술은, 검객 설생이 어렸을 때 부친이 장사하러 나갔다가 도적에게 살해당하고, 천행으로 당해 지방관의 도움을 받아 도적을 잡아서 부친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는 첫 번째 삽화에서도 확인된다. 유한준은 이 부분을 “부친이 일찍이 장사를 하느라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를 드나들다가 피살되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마침 현령이 그 일을 조사하여 검객의 부친을 살해한 자를 잡아 죽였다”¹⁸⁾와 같이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남주헌은 <검객설생전>에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부친이 일찍이 충청도와 경상도를 오가며 장을 찾아 다녔는데 하루는 소를 끌고 나갔다. 날이 채 밝지 않았는데 달빛 때문에 날이 밝은 줄 알고客이 부친을 따라나섰다. 부친이 꾸짖으며 말하기를 “어린아이는 새벽 안개를 맞아서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거라”하였다. 어떤 긴 골짜기에 이르러 멀리 바라보니 두 도적이 그 부친을 살해하고 소를 빼앗아갔다. 객은 스스로 부친이 이미 죽었고 또 (자신이) 해를 입는다면 부친의 원수를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도적이 지나간 뒤에 비로소 수풀에 부친의 시신을 덮어두고는 곧바로 저잣거리로 들어가 그 소를 몰고 가는 이를 찾아 두루 살펴보았다. 그런데 도적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郡에 고하니 郡官이 다시 조사하여 나머지 도적 하나를 잡아 함께 사형에 처했다. 당시 客의 나이 겨우 아홉 살이었다.¹⁹⁾(괄호-필자)

17) 南周獻, 『劒客薛生傳』, 『宜齋集』 卷8: “劒客某, 本嶺南草溪郡民家子, 其先未詳. 人問其姓, 曰薛也, 問其名, 俛而不答. 年三十不娶, 時人呼薛秀才, 以劒術聞, 故曰劒客.”

18) 俞漢雋, 앞의 글: “父嘗逐貨, 出入湖、嶺之間, 爲人殺死, 而亦莫知其誰殺也. 適縣令按其事, 捕殺殺客父者.”

19) 南周獻, 앞의 글: “父嘗逐貨市湖、嶺之間, 一日牽牛而出. 天未曙, 錯認月色, 客隨父往. 父訶之曰: ‘孺子不可犯晨霧, 宜還家.’ 到一長谷望見, 二賊殺其父奪牛去. 客自念父已死已, 且遇害則無以復父讐. 賊過, 始掩父屍於林藪, 卽入市, 遍察驅其牛者. 一賊不在, 告于郡, 郡官又覓, 得其一賊, 並論死. 時客纔九歲矣.”

설생의 부친이 도적에게 피살당한 정황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설생의 대처 또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새벽에 부친을 따라나섰다가 부친에게 꾸지람을 듣고 돌아오던 중 멀리서 부친이 도적들에게 피살당하는 광경을 목격하는 장면, 그리고 설생이 곧바로 저잣거리로 나가 도적을 찾는 장면, 그 당시 설생의 나이가 아홉 살이었다는 서술 등은 <검객기문>에 없던 것이다. 특히 부친이 살해당했을 당시 곧바로 그 앞에 나타난다면 자신이 해를 입어 부친의 원수를 갚을 수 없을 것이라 한 설생의 심리 묘사는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傳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서술이다.

<검객기문>에서는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검객설생전>에서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검객기문>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민간에 떠돌던, 검객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남주현이 전을 짓는다는 의식과 소설을 짓는다는 의식 어느 하나에 투철하지 못한 채 지은 것이 결과적으로 소설적인 심리 묘사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표현, 상상력을 동원한 사건의 구체화와 같은 특징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이 두 가지가 착종하여 위와 같은 특징을 보인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삽화에서는 위와 같이 상상력을 동원한 구체적인 묘사나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서술이 더욱 두드러진다.

후에 한 재상에게 몸을 의탁하였는데 매우 총애를 입었다. 재상이 官府에 앉아 한창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웬 중이 계단을 올라와 재상을 배려 하였다. 중은 재상에게 원한이 있는 자였다. 좌우가 크게 어지러운 가운데 객이 품 속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였다.

며칠이 지나 객이 재상에게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오늘밤엔 침소를 옮기십시오.”

재상이 그 말을 따랐다.

밤이 오경에 이르렀을 때 대나무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문이 저절로 열

리면서 중 하나가 칼을 지고 들어왔다. 재상을 찾다가 못 찾고는 재상이 남겨둔 옷만 있어 중이 세 번 발돋움하여 그 옷을 칼로 찌르고는 객을 불러 말하였다.

“재상으로 하여금 내 손에 죽게 하지 않으려고 피를 썼구나. 죽은 중은 내 사미승이니 나와 검술로 겨루는 것이 어떠냐?”

“좋다.”

서로 몸을 날려 공중으로 올라가니 칼 빛이 무지개나 번개 같고, 구름 사이에서 겨루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피가 몇 방울 땅에 떨어졌다. 객이 칼을 지고 크게 소리치며 내려와 말하였다.

“중은 죽었다.”

그리고는 재상에게 고했다.

“제가 공개 몇 년 간 깃들여 지낸 까닭은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은혜를 갚았으니 떠나겠습니다.”

재상이 말하기를

“내가 자네에게 무슨 은혜를 입혔단 말인가?”

하니 말하기를

“지난번 草溪에서 부친의 원수를 갚으려다가 도적 하나를 놓쳤는데 공께서 찾아내어 그를 죽이셨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 하였다. 재상이 비로소 깨닫고 크게 놀라 고개를 숙이니 객이 말하기를

“갚아야 마땅하여 갚았으니 떠나갈 때가 되어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라 하고는 칼을 한번 휘두르고 사라졌으니 그 종적을 알 수 없었다.²⁰⁾(밀줄-필자)

20) 南周獻, 『劍客薛生傳』, 『宜齋集』 卷8: “後托身於宰相, 甚見幸. 宰相方坐府治事, 忽有一僧歷階, 欲刃宰相, 僧有仇於宰相者, 左右大亂, 客拔懷中劍, 殺之. 居數日, 客語宰相曰: ‘今夜請移寢.’ 宰相從之. 夜五鼓, 竹風蕭瑟, 門扉自開, 一僧負劍而入, 尋宰相不得, 但有留其衣, 僧三躍劍其衣, 呼客曰: ‘使宰相不死於吾手而謀也, 死僧吾沙彌, 可與吾戰劍否?’ 曰: ‘可.’ 相與翻身而騰空, 劍光如虹如電, 在雲霄間, 而不見人. 少頃, 血墮地數點, 客杖劍大嘯而下曰: ‘僧斃矣.’ 告宰相曰: ‘吾所以館于公有年者, 爲報恩. 恩已報, 敢辭.’ 宰相曰: ‘予何女恩?’ 曰: ‘鄉在草溪, 欲報父讐, 而失一賊, 公覈以殺之, 是吾恩也.’ 宰相始悟, 大驚俛之. 客曰: ‘當報而報, 則當去而去, 可也.’ 一揮劍茫然, 不知其所終.”(밀줄-필자)

이 삽화의 전반적인 줄거리 역시 <검객기문>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세부 서술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재상을 해치러 온 惡僧에 대해 <검객기문>에서는 ‘본디 원수 집안의 자식이었다’[乃故是仇家子也]라고 한 데 반해 <검객설생전>에서는 악승이 재상에게 원한이 있는 자라고 하고 있다. 원수 집안의 자식이라고 하면 검객과 원수지간인지 재상과 원수지간인지가 불분명한데 남주헌은 그 악승이 재상의 원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처음 들이닥친 악승을 물리치고 나서 설생은 재상에게 이후 또 다른 악승이 나타날 것임을 예견하여 말해 준다. <검객기문>에서는 ‘열흘 뒤에 틀림없이 다시 중 하나가 올 것’[後十日, 當有又一僧來]이라 하여 예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검객설생전>에서는 그 내용을, 어느 날 갑자기 설생이 재상에게 침소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 다 악승의 출현을 예견한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열흘 뒤에 악승이 올 것이라는 <검객기문>의 평면적이고 직접적인 예견과는 달리 <검객설생전>에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갑자기 설생이 재상에게 침소를 옮길 것을 청한다. 이러한 서술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다.

이어지는 서술도 주목되는데, 죽은 악승의 스승이 찾아와 검투를 청하는 과정에 대해 <검객기문>에서는 ‘나중에 과연 찾아와서 검객을 부르며 일전에 죽은 불승이 자신의 사미승이니 검술로 한번 겨뤄보자’²¹⁾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검객설생전>에서는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五更이 지나면서 대나무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악승이 나타나는 대목은 소설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밤에 악승이 나타나 재상의 옷을 찢는 것은 저 췌의 豫讓이 趙襄子를 죽일 수 없게 되자 조양자에게 청하여 그의 옷을 빌려 그것을 찢음으로써 상징적으로 복수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²²⁾

21) 俞漢雋, 『劍客記聞』, 『自著』 卷17: “後果來, 呼劍客曰: ‘死僧吾弟子, 可與吾劍戰否?’”
22) 司馬遷, 『刺客列傳』, 『史記』 卷86.

그렇다고 해서 위 서술이 전적으로 남주현의 허구적 창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삽화 자체가 지니고 있는 흥미성, 특히 검투 장면은 <검객기문>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²³⁾ 즉 유한준이나 남주현이 채용한 삽화가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져온 설화의 화소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흥미성 때문이다. 다만 남주현은 見聞한 이야기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장면 묘사를 실감 나게 하고 세부 서술을 고쳐 적극 긴장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작을 시도했으며 이 점은 유한준의 작품과 변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민간 설화의 수용과 활용

남주현의 <검객설생전>은 크게 두 개의 삽화와 논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삽화의 모티프는 모두 설화에서 가져온 것이다. 설생처럼 부친이 도적에게 피살당한 후 지략으로 부친의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는 야담에서도 확인되는데, 가령 『靑邱野談』의 <臨時處變以報其父讐>는 강원도 金化에 사는父子 이야기로, <검객설생전>의 위 삽화와 상당히 유사하다. <臨時處變以報其父讐>의 줄거리는 이렇다. 어떤 父子가 金化和 兎山을 오가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父子가 함께 장에서 소를 사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도적에게 살해당한다. 도적이 아들까지 죽이려 하자 아들은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은 본래 걸식하던 아이였는데 그저 돈을 받고 따라다니던 것이라 하고 이제부터 도적을 따르겠노라고 말한다. 도적과 함께 토산에 이르렀을 때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달아나서 관에 고발하여 부친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溪西野談』에 <金化縣村父子>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민간에 널리 전하였던 것을 보면 설생의 부친이 피살당하는 장면이나 어린 설생이 관의 도움으로 부친의 원수를 갚는 장면 등은 남주현이 민간 설화에서 착안하여 서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객설생전>에서 설생의 부친이 살해당한 경위와

23) 俞漢雋, 앞의 글: “乃劒戰, 劒相摩若霜雪光, 見空中有兩青鸞相爲低仰. 居有間, 血三四點墮于地, 徐下大嘯曰: ‘僧斃矣. 劒有十二術, 其一術僧不知也, 然善劒也.’”

부친을 살해한 도적을 잡기 위한 설생의 행위 등은 <검객기문>과 달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남주헌이 위 야담을 활용하여 이 작품의 삽화를 더욱 실감 나게 기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객설생전>의 두 번째 삽화 역시 그 핵심 화소를 설화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설생이, 제자의 원수를 갚기 위해 찾아온 불승과 대결하여 그를 물리친다는 화소는 『靑邱野談』卷2의 <鬪劍術李裨將斬僧>에서 확인된다. 이 설화는 李裨將이 전주감영으로 부임하러 가던 도중 배 안에서 여인을 희롱하는 중을 죽였는데, 한참 뒤 죽은 중의 제자가 찾아와 이 비장에게 복수하러 하자 이 비장이 한 달 동안 매일 소 한 마리씩을 먹고 힘을 키워 중을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李安中이 쓴 <李將軍傳>의 핵심 화소로 활용되기도 한 이 이야기에서 남주헌이 취한 것은,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찾아온 중을 물리쳤다는 모티프만이 아니다. <검객설생전>에서 주인공 薛生이 惡僧과 결투를 벌이는 장면 또한 설화와 흡사하다. 설생과 악승은 공중으로 올라가 겨루는데 그 검술 대결 장면과 비슷한 서술이 <鬪劍術李裨將斬僧>에서도 확인된다. 그 공통점이란 곧 주인공과 악승이 하늘로 올라가 대결할 때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신비롭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중전 장면은 <劍客記聞>에서도 보이고, <李將軍傳>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극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유사한 설화를 기반으로 이안중이나 유한준, 남주헌이 세부 기술을 달리한 것이다.

<검객설생전>은 설생이 부친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 군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검술을 익혀 재상이 된 군수를 위기에서 구원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을 전체 줄거리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두 삽화가 서로 다른 설화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두 삽화가 하나의 줄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교직될 수 있었을까? 필자가 아직 求得하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에 수용된 설화의 모티프는 위의 두 가지 이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주인공의 부친의 원수를 갚아준 지방관이 나중에 재상이 되고, 주인공이 검객이 되어 그 재상에게 의탁해 지내다가 위기에 처한 재상을 구해 은혜를 갚는다는 모티프의 설화가 <검객설생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유한준의 <검객기문>이 유기적인 구성을 의도하지 않은 삽화적 유형에 가까운데 <검객기문>에서부터 그러한 모티프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티프 덕분에 <검객설생전> 삽화의 首尾가 더욱 유기적으로 교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論贊을 통한 작품의 통일성 강화

<검객기문>에는 없는데 <검객설생전>에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다. 바로 논찬이다. 이는 전제 소설이 보이는 공통적 특징이기도 한데, 傳의 장르적 성격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식이 그러한 형식적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주현이 기술한 논찬부는 다음과 같다.

의양자는 말한다. 내가 듣기로 薛生은 劒舞에 능했는데 밤에 문득 술자리를 벌여 古의 劒俠 이름을 불러 제사 지내고 따로 왼쪽에 술 한 잔을 두고는 “이는 荊卿이 올리는 것이다. 荊卿이 검술에 능하기는 했지만 검술을 다 알지 못하여 秦王을 죽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검술은 여러 검객들의 제주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 하였다고 한다. 아! 그 뜻이 진실로 크도다. 금릉 사람이 내게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²⁴⁾

이 논찬부에서 우리는 낯익은 서술을 접하게 된다. 설생이 劒俠들을 제사 지내는 장면이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유한준의 <검객기문> 가운데 주인공이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다가 천행으로 왜 검사를 물리친 후 매해 아홉 개의 술잔을 두고 함께 출전했던 여덟 검사들과 왜 검사를 제사 지냈다는 서술을 떠올려보자. 특히 술잔 하나를 따로 두고 그것을 왜 검사에게 올렸다고 한 바 있는데 남주현이 쓴 이 논찬부에서는 따로 둔 술잔의 주인이 왜 검사에서 荊卿, 즉 荊軻로 치환되어 있을 뿐이다. 이 논찬부에 제시되어 있

24) 南周獻, 앞의 글: “宜陽子曰: 余聞薛生好舞劒, 夜輒設酒, 呼古今劒俠名酌之, 別設一卮於左曰: ‘此侑荊卿也. 荊卿好劒, 而不知劒, 不得使秦王死. 其劒不可與諸俠等其術也.’ 嗚呼! 其志誠偉矣. 金陵人爲余道其事如此.”

는 설생의 말은 작자 남주현의 의도적인 창작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작품보다 먼저 이루어진 <검객기문>이 야담의 원형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검객기문>에서 주인공이 제사를 올린 대상이 이미 함께 출전했던 여덟 검사와 자신이 죽인 왜 검사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남주현은 논찬부에서 형가를 등장시키고 있을까? 형가는 자신을 알아 준 燕의 隱士 田光을 위해 秦王으로 가 秦王을 죽이려다 실패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은 인물이다. 형가는 『史記』 『刺客列傳』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薛生과 荊軻 사이에는 검술이 뛰어나다는 점 이외에 표면적인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논찬부에서 남주현이 荊軻를 등장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설생에게 형가의 이미지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형가를 포함해 『刺客列傳』에 등장하는 자객들은 모두 ‘자기를 알아주었다는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할 큰 은혜’로 여긴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기를 알아준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일종의 報恩의 의미를 띤다. 검술은 그 보은의 과정에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런 점에서 형가와 설생의 또 다른 공통점이 드러난다. 즉 형가는 田光이 자신을 알아주었다는 것을 큰 은혜로 여겨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秦王을 비수로 암살하려 했던 것이고 설생은 郡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검술을 연마하여 재상이 된 군수를 해하려는 대상을 제거한 것이다. 비록 은혜를 갚는 과정에서 검술로 대적한 대상이 악승과 秦王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검술’과 ‘보은’의 요소만 놓고 본다면 설생과 형가는 동궐에 놓일 수 있다. 남주현은 ‘검술’과 ‘보은’에 초점을 맞추어 삽화들을 개작하고 논찬부에서 형가를 등장시켜 설생의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형가의 그것에 견주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찬부는 이 작품에서 통일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조선후기 검협전의 전통과 <劍客薛生傳>

유한준의 <劍客記聞> 가운데 주인공이 임진왜란에 참전한 삽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임진왜란은 검객·검협의 존재 파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劍客의 존재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에나 파악되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劍客 혹은 劍士의 존재를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임진왜란 이전에 우리나라에 劍客이 있었을지라도 역사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전쟁이 발발하자 明에 請兵하는 과정에서 明의 장수가 조선에 군사 일을 의논할 만한 劍客이나 謀士가 있느냐고 묻자 비변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술을 익히지 않고 異能을 지닌 術士도 없다’고 답한 것,²⁵⁾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검술이 전해 오지 않는다는 宣祖의 언급²⁶⁾ 등으로 보아 당시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민간에서조차도 검객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듯하다.

그에 반해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倭人들 가운데에는 劍士가 상당히 많았다. <劍客記聞>의 임진왜란 관련 삽화에서 倭 검사의 草笠劍法이 神異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단지 흥미를 위한 과장만은 아닐 터이다. 당시 倭 劍士는 조선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²⁷⁾ 가령 직접 전투를 목도했던 趙翼(1579~1655)은 왜적이 먼 거리에서 鐵丸을 비 오듯 쏟아부어 그것에 맞기만 하면 쓰러지고, 가까이로 와서는 지극히 기묘한 검술을 구사하여 상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²⁸⁾ 劍術의 전통이 거의 전해지지 않던 우리나라에 왜 검사들이 들이닥치자 조정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항복하거나 귀순한 왜인 가운데 검술에 능한 이를 가려 우리 군사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도록 했다. 특히 宣祖는 왜인과 明軍으로부터 검술을 익히도록 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²⁹⁾ 또 宣祖 27年(1594)부터는 여러

25) 『宣祖實錄』卷32, 宣祖25年 11月11日條: “一. 本國有無奇謀異能, 劍客謀士, 可與談兵, 可爲內應? 前件照得. 本國不閑劍術, 且無異能之士, 而家家復壁, 潛置戎器, 約待外兵, 一時齊起, 日夜唯望天兵來救, 以爲響應.”

26) 『宣祖實錄』卷53, 宣祖27年 7月11日條: “我國自古劍術不傳, 近日粗爲傳習, 此萬世之益也.”

27) 민간에서 왜 검사를, 신이한 능력을 지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점은 『溪西野談』卷1에 보이는 李如松과 왜 검사의 결투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왜 검사가 다가오는 것을 ‘무지개가 삼시간에 다가오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나, 이어총과 왜 검사가 겨루는 장면을 ‘흰 무지개와 같은 기운이 방으로 날아들어 쟁쟁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와 같이 묘사한 것 등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8) 趙翼, 『雜著』, 『浦渚集』卷23: “倭則實難, 何者? 其鐵丸如雨灑, 中者輒倒, 近則其用劍極妙, 此誠難當之賊也.”

차례 검술로 取才하고 武臣들로 하여금 검술을 익히도록 권면하기도 한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없던 學劍의 바람이 불었고 劍士 또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 첫 短兵 武藝書 『武藝諸譜』였다.³⁰⁾

전란이 끝난 후에도 검술에 대한 조정의 관심이 지속되었는데, 인조 5년(1627)에는 병조판서 李廷龜가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 가운데 砲術과 劍術에 능한 자들로 별도의 부대를 만들어 戶役을 감면해 주고 항상 조련하게 할 것’을 포함한 營將節目을 만들어 시행하였다.³¹⁾ 또 숙종 조에는 훈련도감의 병사로 무예에 뛰어난 이를 東萊 倭館에 내려보내 倭人の 劍術을 배워오게 한 일도 있었고³²⁾ 역시 숙종조에 검술이 뛰어난 훈련도감 劍士를 불러 임금 바로 앞에서 검술을 시범케 한 일도 있었다.³³⁾ 하지만 이렇게 조정에서 큰 관심을 가졌고 劍士의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종조 초까지는 검술의 수준이 왜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던 듯하다.³⁴⁾ 그런데 숙종조 金體乾이 검술에 뛰어나 劍仙으로 불리고 그 검술은 검체건의 아들 金光澤으로 이어진다. 정조조의 白東修(1743~1816)는 김광택을 스승으로 삼아 검술을 익혔으니 이들 김체건-김광택-백동수의 검술 계보는 숙종조에서 정조조에 이르기까지 검술의 명맥이 이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또한 正祖는 검술 등의 무예에 큰 관심을 보이며 화성 건설을 시작한 1794년을 전후로 우리나라 武將들의 전기 간행 사업에

29) 『宣祖實錄』 卷30, 宣祖25年 9月17日條; 『宣祖實錄』 卷31, 宣祖25年 10月7日條; 10月15日條; 『宣祖實錄』 卷39, 宣祖26年 6月7日條; 『宣祖實錄』 卷47, 宣祖27年 1月8日條; 1月9日條; 1月12日條; 『宣祖實錄』 卷53, 宣祖27年 7月29日條; 8月15日條 등.

30) 이후에도 1610년에는 『무예제보』에 倭劍 등의 내용을 추가한 『무예제보번역속집』이 편찬되었고, 1759년에는 사도세자의 命에 의해 『무예신보』가, 1790년에는 정조의 命에 의해 『무예도보통지』가 간행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 武藝志 편찬의 전통에 대해서는 노영구, 『조선 후기 短兵 戰術의 추이와 武藝圖譜通志의 성격』, 『진단학보』91, 진단학회, 2001 참조.

31) 『仁祖實錄』 卷16, 仁祖5年 4月20日條: “及日本被擄刷還砲劍成材者, 亦作別隊, 減其戶役, 常加操鍊.”

32) 『肅宗實錄』 卷13, 肅宗8年 10月8日條; 『承政院日記』 肅宗5年 7月27日條.

33) 『肅宗實錄』 卷23, 肅宗17年 11月13日條.

34) 柳赫然이 숙종에게 자신의 부하 중 검술에 뛰어난 자를 동래 왜관으로 내려보낼 것을 청하면서, 우리나라 검술이 일본에 미치지 못함을 분하게 여긴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검술은 일본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은 못 되었던 듯하다. 『承政院日記』 肅宗5年 7月 27日條 참조.

힘을 쏟는다. 金喜에게 『林慶業實記』를, 尹行恁에게 『林忠愍公實記』와 『李忠武公全書』를, 徐龍輔에게 『金德齡遺事』를 편찬하도록 한 것이다.³⁵⁾ 또 洪良浩는 『海東名將傳』을 편찬하기도 했다.

<劍僧傳>의 주인공은 임진왜란에 출전했던 倭 劍士이고 <劍客記聞>에서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주인공의 전투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또 <李將軍傳>은 1644년 明이 멸망한 직후를, <五臺劍俠傳>은 英祖朝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劍女>에는 蘇凝天(1704~1760)이 직접 거명되어 있어 그 배경이 18세기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검협전은 임진왜란으로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學劍의 풍조, 조선후기 전반에 걸친 무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러한 풍조와 관심으로 인해 민간에 유전되던 설화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협전의 전통과 관련하여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설화와의 관련성이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學劍의 풍조가 조성되고 우리나라에 劍士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 검객 혹은 검협과 관련한 이야기가 민간에 유전되었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劍女>가 강상효녀담에 기원을 두고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 있으며³⁶⁾ <劍客薛生傳>은 슬기를 발휘하여 부친의 원수를 갚은 이야기인 『靑邱野談』의 <臨時處變以報其父讐>, 『溪西野談』의 <金化縣村父子>, 그리고 주인공이 惡僧과 대결하는 이야기를 다룬 『靑邱野談』의 <鬪劍術李裨將斬僧>을 받아들여 활용하고 있음을 본고에서 살핀 바 있다. <鬪劍術李裨將斬僧>은 <李將軍傳>과 <劍客記聞>에서도 수용하고 있다. 검협전이 유독 설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 작품군 가운데 서로 비슷한 작품들이 눈에 띄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즉 <保寧少年事>와 <五臺劍俠傳>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찾아든 집에서, 소년(혹은 청년)이 밤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 소년(청년)은 뛰어난 무예를 지닌 자로서 간밤에 친구의 원수를 갚고 돌아왔다는 즐거리를 보이는바, 이는 같은 이야기를 다룬 설

35) 당시 정조의 武將 傳記 간행 사업에 대해서는 김영호, 『조선의 검객 백동수』, 푸른역사, 2002, 279~281면 참조.

36) 강혜규, 『雪橋 安錫傲의 <劍女> 研究』, 『한국한문학연구』41, 한국한문학회, 2008; 이병직, 『강상효녀담의 창작의식과 소설로의 수용』, 『고소설연구』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등 참조.

화를 각각 차용하여 검협전으로 형상화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성된 學劔 열풍이 검협 관련 설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여타 검협과의 연관성이 낮은 설화 화소와도 결부되면서 다양한 검협전이 등장한 바, <검객설생전>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南周獻의 <劔客薛生傳>의 서술 분절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이 유한준의 <劔客記聞>을 개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에 대해 살피고 조선후기에 검협전에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히나마 고찰했다. <劔客薛生傳>은 <劔客記聞>의 개작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개작 과정에서 <劔客記聞>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확인했다. 첫째, 삽화의 改削을 통해 작품 열개의 유기성을 강화하였고, 둘째, 상상력을 동원한 구체적인 정황 묘사와 극적인 서술을 하였으며, 셋째, 이야기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활용하였고, 넷째, <劔客記聞>에는 없던 논찬부를 추가하되 작품의 통일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찬부를 서술한 점 등이다. 남주헌이 이 작품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 이후 형성된 學劔의 풍조가 조선후기 내내 이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검술을 익히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검협, 혹은 검객과 관련한 이야기가 민간에 유전되고 그러한 설화에 기반하여 <검객설생전>과 같은 검협전이 다수 출현하게 된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남주헌이 <劔客薛生傳>을 창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으로 그의 家學, 金祖淳이나 沈魯崇 등 패관기서 애호가들과의 교류 등을 더 들 수 있다. 그의 증조부 남유용이나 종조부 남공철은 특히 人物傳에 特長이 있었는데 家學의 계승에 매우 관심이 높았던 남주헌으로서는 그러한 집안의 분위기로부터 일정하게 영향을 받아 傳을 지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남주헌은 金祖淳이나 沈魯嵩과도 교류했는데,³⁷⁾ 이 두 사람은 당시에 패관소품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金

祖淳은 <五臺劍俠傳>이라는 검협전의 작자이기도 하고 그 스스로 『史記』 『刺客列傳』을 특히 좋아하였으며 唐의 <紅線傳>이나 明의 <韋十一娘傳>과 같은 검협전을 애호하였음을 언급하기도 했다.³⁸⁾

劍俠 역시 俠客의 면모가 있어 검협전과 유협전은 종종 구분하기 모호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선의 검협 형성과 검협전은 유협이나 유협전의 형성과 궤를 달리한다. 유협이 17세기 이후 도시 성장으로 인한 제반 현상이 직접적인 성행 요인이었다면 검협이나 검협전은 임진왜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사실 본고에서 사용한 ‘검협전’이라는 명칭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조선후기의 검협전에 대한 전통을 구조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游俠-劍俠-劍客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진왜란과 민간의 검협 설화가 그 형성 배경이 되기는 했지만 조선 후기 검협전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도 있다. 패사소품 독서가 유행하던 당시 독서 경향을 고려하면 중국 검협전의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37) 『宜齋集』卷8에는 金祖淳에게 보낸 편지 『上金大學士書』, 沈魯嵩에게 보낸 편지 『答沈泰登書』가 수록되어 있다.

38) 金祖淳, 『五臺劍俠傳』, 『滯庭叢書』: “余童子時, 愛太史公『刺客傳』, 讀之往往忘食, 以爲: ‘天下之奇, 無過於是.’ 及讀唐傳奇『韋十一娘』、『紅線』諸傳, 又茫然自失.”(박희명,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784~785면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1. 자료

- 南公轍, 『金陵集』, 한국문집총간 272.
南周獻, 『宜齋集』, 규장각 소장본.
俞漢雋, 『自著』, 한국문집총간 249.
俞漢雋, 『著菴集』,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7.
趙翼, 『浦渚集』, 한국문집총간 85.
『宣祖實錄』
『仁祖實錄』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韓非子』
『史記』

2. 단행본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김영호, 『조선의 협객 백동수』, 푸른역사, 2002.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의 傾向 研究』,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박희병,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박희병·정길수 편역, 『기인과 협객』, 돌베개, 2010.

3. 논문

- 강혜규, 『雪橋 安錫傲의 <劍女> 研究』, 『한국한문학연구』41, 한국한문학회, 2008, pp. 445~475.
노영구, 『조선후기 短兵 戰術의 추이와 武藝圖譜通志의 성격』, 『진단학보』91, 진단학회, 2001, pp. 355~381.
박희병, 『조선후기 민간의 유희승상과 유희진의 성립』, 『韓國古典人物傳研究』, 한길사, 1992, pp. 276~337.
안순태, 『宜齋 南周獻의 中國 詩史와 杜詩에 대한 인식』, 『한국한시연구』16, 한국한시학회, 2008, pp. 337~354.
안순태, 『南公轍 文學의 淵源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pp. 203~237.
이병직, 『강상호녀담의 창작의식과 소설로의 수용』, 『고소설연구』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pp. 183~214.
이현호, 『朝鮮後期 《史記》 批評 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1.

A Study of Gumgaegseolsaengjeon[劍客薛生傳]

An, Soon-t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Geomgaegseolsaengjeon[劍客薛生傳], the swordsman Seolsang's biography written by Nam Juheon[南周獻]. The biography started out with Seolsaeng's father killed and robbed of his cow by burglars when Seolsaeng was young. Seolsaeng saw the robbery taking place and informed a government official who found the burglars and demanded the death penalty. Seolsaeng studied swordsmanship for several years before working for a prime minister. One day, a Buddhist priest, who is the prime minister's enemy, forced himself in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suddenly tried to attack him. Seolsaeng instantly killed the Buddhist priest with his sword. After several years, Seolsaeng advised the minister to change his bedroom that night for his safety. At midnight, another Buddhist priest broke into the minister's original bedroom, but found it empty. This Buddhist priest exclaimed, "The last priest you killed was my student, so why don't you fight me?" Seolsaeng and the Buddhist priest fought each other until Seolsaeng killed him. Seolsaeng then turned to the prime minister and said, "I repaid your kindness, and I will now leave you." The prime minister was the same government official who helped find retribution for Seolsaeng's father's death.

This biography was not originally written by Nam Juheon, but was adapted from Yu Hanjun[俞漢雋]'s work, Geomgaeggimun[劍客記聞]. The contents of these two works are similar, but there remain differences. For example, Nam removed a scene from Yu's work that would ruin the plot's perfection. In addition, Nam used an unofficial historical tale in his work to make it more lively and interesting. Finally, Nam criticized Seolsaeng praising Hyung-ga[荊軻], a famous assassin in ancient China. Since Yu's work is a direct transcription of tales from the people, there is no criticism. The assassin Hyung-ga attempted to kill the king of

Qin[秦] for Tianguang[田光], who appreciated Hyung-ga. Seolsaeng and Hyung-ga are equal when considering how they repay kindness. Therefore, Nam's criticism contributes to the work.

Swordsmen emerged after Imjinueran, which is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were prevalent throughout the latter Joseon times. During these times, tales about swordsmen were popular among the people and writers wrote biographies about the swordsmen tales.

Keywords : Geomgaegseolsaengjeon[劍客薛生傳], swordsman, assassin, biography,
Nam Juheon[南周獻], Yu Hanjun[兪漢雋]

접수일자: 2014. 3. 31. 심사기간: 2014. 3. 31.~2014. 5. 10. 게재결정: 2014. 5. 10.
